

도마에 오른 광주시 감사위 '억지 감사'

법률자문사 입찰 개입 혐의 간부직원 4명 수사의회 미래형 자동차 투자유치 난항 검찰 2개월 수사 무혐의 처분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미래형 자동차 투자 유치 관련 부당한 입찰 개입을 했다며 수사의뢰한 광주시 고위공무원들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자동차 업체 투자유치와 관련해 법무법인 입찰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것이 시 감사위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2개월이 넘는 수사를 통해 그와 같은 혐의

가 없다고 못박으면서 시 감사위의 '무리한 감사'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시 감사위는 당시 외부 전문가인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사의뢰를 강행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11일 "광주시 감사위가 지난 4월 12일 친환경 자동차산업 유치 관련 법률 자문 용역 과정에서 입찰 부당개입 혐의로 수사의뢰한 3급 부이사관, 4급 서기관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광주시가 법률자문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평가 기준, 배정, 평가위원 선정, 심사기준 등을 조사한 결과,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검은 그동안 입찰을 진행한 광주 그린카진흥원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을 차례 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다.

광주시는 자동차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동차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한 법률 문제를 자문·분석해 주는 법무법인을 선정하면서 지난 2월 2일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입찰공고를 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바 있다.

그러나 시 감사위는 "1억7000만원 상당의 미래형 자동차사업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 입찰에 관련 공무원들이 부당한 입찰개입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수사의뢰로 자동차 대기업과의 사전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며, 광주시의 대내외적 이미지는 물론 관련 공무원

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광주시 감사위는 당시 자동차밸리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를 벌이다가 메드라인 투자 정보 유출 문제로 이들 간부직원과 청와대 직원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힌 뒤 다시 법무법인 입찰 문제를 들고 나오는 등 '표적감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시 감사위의 이해하기 힘든 수사의뢰에도, 광주시는 대기업들과 사전 협상을 계속한 끝에 지난 6월 1일 현대차가 광주형 일차리에 대한 투자 의향을 밝혀주에 따라 현대차와 광주시가 투자하는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7 달뜨기 04:18
해질 19:49 달짐 18:55

한중막 더위

당분간 습한 공기가 유입돼 덥겠다.



지역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광주	맑음	24/35	보성	맑음	22/33
목포	맑음	24/32	순천	맑음	24/33
여수	맑음	24/30	영광	맑음	24/35
나주	맑음	23/35	진도	맑음	23/33
완도	맑음	23/30	전주	맑음	25/33
구례	맑음	23/33	군산	맑음	24/33
강진	맑음	23/31	남원	구름많음	23/33
해남	맑음	23/33	흑산도	맑음	22/28
장성	맑음	22/33			

지역	생황지수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동~남	0.5~1.5	남동~남	0.5~1.0	
남부	면바다	남동~남	1.5~3.0	남동~남	1.0~2.5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5	남동~남	0.5~1.0
		면바다(동)	남동~남	1.0~2.5	남동~남	1.0~2.0
		면바다(서)	동~남동	1.0~2.0	동~남동	1.0~2.0

목표	간조		만조	
	시각	수치	시각	수치
여수	06:43	01:14	01:14	13:15
	18:45	13:15	02:09	08:12
여수	02:09	08:12	14:15	20:54
	14:15	20:54		

주간 날씨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19(목)
날씨	☀	☀	☀	☀	☀	☀	☀
기온	24/34	24/34	24/33	24/33	24/34	24/34	24/34

광주·나주·함평·영광 폭염정보...8개시·군 주의보

광주지방기상청은 "12일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와 나주·함평·영광에 발효한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11일 오전 보성·광양·순천·장흥·강진·해남·영암·진도 등 전남 8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추가로 발효했으며, 이날 오후 5시 기준 낮 최고기온은 광주·함평 33.1도, 영광 33도, 나주 32.9도, 광양 32.7도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12일 폭염특보 발효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3~35도를 기록하고, 내륙에선 밤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광주서 열린다

공판준비기일, 재판부 이송 신청 거부...16일 첫 재판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 부에 대해 '사탄의 탈을 쓴 신부'라고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 재판이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11일 오후 3시 354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전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 법원에 관할이 없다는 전 전 대통령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전 전 대통령 대신 출석한 변호인은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광주 법원에 관할이 없다'며 재판을 거두지인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기일변경(연기)에 이어 이송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지만, 전 전 대통령은 고령, 이송 신청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갓끈 고쳐 매고...오늘은 나도 선비. 유성복을 함께 차려 입은 화순초등학교 학생들이 11일 화순군 향교에서 열린 유성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양항 등 전국 10개 항만 붉은불개미 차단 총력전

정부, 집중관리대상 지정 예찰·방역활동 대폭 강화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미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평택·인천·부산항을 포함해 광양항 등 10개 항만을 집중관리대상 항만으로 지정하고 예찰 전담인력도 확대하고 있다.

이들 항만은 앞으로 붉은불개미 발견지역에 준하는 수준의 예찰과 방역이 이뤄진다.

예찰 트랩 설치와 육안 조사는 월 1회에서 2주 1회로 늘어나고, 월 1회 정부 합동 예찰이 진행된다. 항만 주변 검역지정장소 489곳은 이달 말까지 점검이 이뤄진다.

정부는 또 붉은불개미 자문 민간전문가를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늘려 현장 합동 조사, 불개미 분류, 유입경로 역학조사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올초부터 붉은불개미의 광양항 유입 차단에 발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현재까지 불개미 유입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다.

공사는 올해 초 '광양항 붉은불개미 방제 대책'에 따라 부두 내에 주기적인 약제 살포와 잠재서식 환경을 제거하는 한편 항만이용자의 안전과 국민불안감 해소를 위해 붉은불개미가 부두 내에 서식할 수 없도록 약제살포 등에 나서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미세먼지 인지발달 막고 태아 사망까지 부른다" 환경·의료계 대책 촉구

환경·의료계가 공동으로 영유아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등 미세먼지의 악영향이 크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학 전문가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홍수중 서울아산병원 교수, 하은희 이화여대 의대 교수, 홍운철 서울대 의대 교수, 김장수 연세대 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하은희 교수는 '미세먼지의 태아와 어린이, 청소년 성장발달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임신 기간 노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태반을 경유하며 염증 반응, 혈류 장애, 저산소증 등 산화 스트레스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조기 진통과 기타 주산기(분만 전후 기간) 사망 발생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특히 임신부가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될수록 영유아의 아토피 피부염 위험성이 높아지며 인지발달이 지연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환경·의료·보건 전문가는 국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